

# 광주시 2659억 들여 '녹색 도시' 전환 추진 본격화

###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 실현 대기산업 인프라 등 240개 시행 빛그린산단 대기산업 클러스터 착공 생태관광 '평촌마을 누리길' 조성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659억원을 투입해 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체계 확립, 푸른 도시 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및 친환경 하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 도시 기반 조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해 유지한 빛그린 산단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대기산업 관련 미세먼지 대응 혁신기술 개발·실증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환경도시기반·자연환경보전 사업 32개 124억원, 대기질 개선사업 34개 567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59개 414억원, 도심 속 녹지 확충사업 72개 876억원, 건강한 물환경 조성사업 32개 498억원, 친환경 하수관리사업 12개 66억원 등이다.

시는 2045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 공원녹지 종합계획, 물수요 관리·하천사업 종합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각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총괄적인 구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녹색전진도시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유지에 성공한 빛그린 산단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올해 착공하고 2022년까지 대기산업 관련 미세먼지 대응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로 조성한다.

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복습지는 시민 참여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장복습지-어등산-북룡산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평촌마을 누리길은 올해 안에 조성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9010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7500여 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142대), 전기차 보급(1238대)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지원 사업에 나선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위생매립장을 단계별 앞당겨 조성하고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등 공공 선별시설을 확충한다.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RFID)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지원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돕는다.

녹지확충 분야는 시민에게 힐링 공간이 될 도시공원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관광명소인 광주생태문

화마을,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립수목원 조성 등 대규모 녹지를 조성한다. 동시에 자투리 땅을 활용한 녹지 한 평 늘리기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녹도 등 소규모 녹지 조성을 병행한다.

물관리와 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과 접목한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노후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도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청정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아리랑 문화 물길 조성, 시립수목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광주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농수특산물 서울 강남서 직거래

전남도와 롯데백화점, 재경광주전남향우회가 지난 10일 전남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정기적인 직거래 판촉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수 롯데백화점 수도권 1 지역 본부장,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전동평 영암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기업체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득 증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남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 ▲차별화된 고품질 농수특산물 생산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정기적인 직거래 판촉 행사 ▲기타 상호 교류 및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협약체결을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전남도와 롯데백화점이 함께하는 전라남도 우수 농수특산물 대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완도 전복, 진도 멸치, 신안 새우젓·소금, 장흥 표고버섯, 해남 고춧가루, 보성 장류, 화순 기정떡, 고흥 석류식품, 영암 쌀·무화과·인절미, 담양 전통장류 등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을 행사 기간 동안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 지사는 "농어인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수특산물에 제값을 받아 농어가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인 롯데백화점과 재경광주전남향우회가 전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12개 마을 903세대 LPG연료 공급시설 현대화

전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인 농어촌 12개 마을 903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8억6000만원을 들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인구밀도가 낮아 배관 투자의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흥부지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가스 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연결해 도시가스 수준으로 LPG 연료를 공급한다.

올해는 사업 희망 15개 시·군에서 70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사업 의지, 저장탱크 부지 확보, 세대 밀집도 등을 평가해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규모별로 ▲30~59세대인 소규모 6개 마을(함평 삼정2, 화순 주암, 강진 안룡, 영암 안노, 여수 두포, 구례 가림), ▲60~99세대인 중규모 4개 마을(순천 용두, 구례 독자, 영암 원왕산, 신안 화산)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2개 마을(영광 상봉, 해남 내동)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중외공원 주변 송전선로 내년 말까지 지중화 추진

광주시는 "시민 민원을 반영해 중외공원 주변 송전선로를 지중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외공원 일대를 지나는 가공 송전선로 철탑 10기를 철거해 지하로 이설하게 된다. 이 일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가 1.6km, 광주시와 한전이 0.7km 구간을 지중화한다. 사업자 132억원, 광주시와 한전 47억원씩 모두 226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다음달, 시와 한전이 분담하는 지역은 내년 초 착공해 내년 말 동시에 준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 전남도, 6월 18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를 오는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품목별로 벼는 10호 이상 농가가 연접한 10ha 이상 농경지를 집단화하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업체·과채류·근채류는 참여 농가 5호 이상 농가가 2ha 이상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농업을 30% 이상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 자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자체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확정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일 남구 봉선동 제석산 봉선2근린공원 쉼터에서 열린 제22회 '현장 경영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제석산 가장자리 생태탐방로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시민과 함께 남구 제석산 생태 복원

### 이용섭 시장 현장 경영의 날 행사 12~16일 자치구 순방 현장 대화

광주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남구 제석산 생태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제석산 가장자리 봉선2 근린공원 쉼터에서 현장 경영의 날 행사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제석산 탐방로는 도심 인근에 있으나 불법 경작에 따른 토양오염, 생활 폐기물 투기 등으로 훼손되고 탐방 데크가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

적이 많았다.

현장에서 한 시민은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산림 일부는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폐기물이 방치돼 미관상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쾌적한 산림생태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용산터널 소음 차단 방안 마련, 봉선2 근린공원~생태복원 지역 진입 계단 정비, 귀일원 도로 방음벽 정비 등 건의도 나왔다.

광주시는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10월까지 제석산 가장자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시민, 자치단체,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생태복원 우수 사례로 만들겠다"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자치구 순방에 나서며, 12~16일 동·광산·북·남·서구순으로 현장 대화를 한다.

그동안은 구성사를 찾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에 중점을 둔다 고 광주시는 전했다. 자치구 주재별 정책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며 30~4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성군 백양사 부근**

# 명품 한옥 전원주택 매매

**전통 한옥명장이 대목장이 건축**

- 대지 754㎡, 건물 142㎡, 별도 담 704㎡
- 민박, 펜션 등 건축 가능,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
- 내부구조 :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별실 민박 운영 가능, 야외 평상, 야외 화장실 등
- 중앙관정 설치 → 지하 150m 암반수 사용
- 500만~1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 주택 가치 상승

**매물 가격 : 12억원 (일부 조정 가)**

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959-7    면적 건물 142㎡ 대지 754㎡ / 441평 100평 ↑

**상담문의 062)226-7501**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